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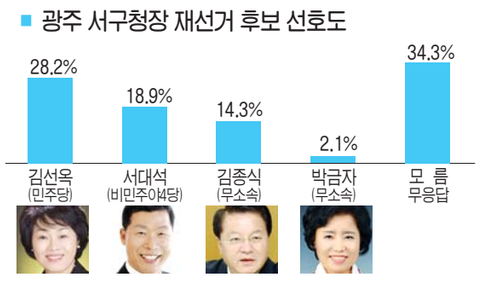
단기 4343년 (음력 9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99호 1판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광주일보-한국갤럽 서구청장 재선 여론조사

김선옥 28.2% 1위

서대석 18.9%·김종식 14.3%



광주 서구민들은 차기 서구청장으로 민주당 김선옥 후보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조사결과는 광주일보와 광주C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일 광주 서구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에 따른 것이다.

차기 광주 서구청장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선옥 예비후보가 28.2%로 1위를 달렸다.

최근 비(非) 민주 야 4당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참여당 서대석 예비후보가 18.9%로 그 뒤를 쫓았으며, 무소속 김종식 예비후보는 14.3%로 서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는 공식출마 선언 전 여론조사를 한 탓에 2.1%를 기록했다. 무소속 송재선 후보도 이번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11일 후보를 자진 사퇴함에 따라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 판세는 '1강 2중 1약' 구도로 요약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34.4%나 되는데다, 투표일까지는 변수가 많아 향후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민들은 또한 이번 재선거 투표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지역발전 가능성'(57.5%)을 꼽았으며, 이어 전 청장의 비리로 인해 치러지는 재선거임을 의식한 탓인지 '청렴도'(32.0%)를 눈여겨 보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5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민주노동당 12.4%, 국민참여당 5.4%, 한나라당 4.0%, 진보신당 3.1% 순으로 서구민 두 사람 중 한 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0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 2010. 10. 17(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병 용

당신만 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할인
• 객 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칠순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광주·무안공항 'KTX 직격탄'

2014년 여객 수요 64% 이상 급감

교통硏 "광주공항, 무안 이전 시급"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여객수요가 64%이상 급감하는 만큼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토 서남권 공항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조속히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서남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안군 흑산도에 경비행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 용산~광주 간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오는 2014년 개통하면 김포~광주·무안공항 간 여객수요가 종전보다 64.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포~여수공항 간 여객 수요도 47.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8분,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120분이 각각 단축되면서 그동안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던 이용자들이 대부분 KTX로 갈아타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또, KTX가 개통된 이후 항공사에서 운항편수를 축소할 경우 9~18%의 여객수요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께 인천공항이 KTX에 직결될 경우 현재 국제선이 운항하고 있는 무안공항은 21.5%의 국제선 여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측은 이에 따라 지방공항의 구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공항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안공항을 단거리·동남아시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중심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국토 서남권 발전을 견인하는 기간시설로서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국 해남도와 장사, 심양 등 중국 노선에 특화하고 동남아 지역의 저가항공 국제선을 유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원 측은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에 이전·통합, 공항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에 대해서는 주변이 도심화되어 개발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갈수록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이밖에 신안군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흑산도에 50석 규모의 경비행기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경비행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 건립된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가 11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 16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센터는 연면적 1만9590㎡에 지상 2층 규모로 TV와 세탁기, 냉장고, LCD 등 중·대형 전자제품에 적용될 최첨단 금형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사진은 금형 형상가공 공정 라인.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금형센터 준공

광주에 600억 추가 투자

삼성 가전의 디자인 혁명을 이끌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 준공식이 11일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사이언스밸리 삼성광주전자 3공장 내에 정밀금형개발센터를 건립,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장병완·이정현 국회의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형센터는 연면적 1만9590㎡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 9개월만에 1000억원을 들여 1단계 사업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 센터에 2012년까지 2단계 400억원, 3단계 2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금형센터는 삼성전자 금형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차별화된 디자인의 생활가전과 TV, 컴퓨터, 프린터, LCD 등을 개발·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형 제작 전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고정밀 금형을 만들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췄다.

센터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전남대·한국폴리텍대학에 금형 교과과정을 운영해 우수 금형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15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졌고, 투자가 확대되면 고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 건립으로 매년 경제 유발 효과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지성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우수한 금형기술은 사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협력사와 공유하고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이 이뤄지는 금형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 F1 검수 오늘 결과 발표

22일 국내 최초로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 대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가 11일 실시됐다. 첫 대회를 치를 수 있을 지의 여부는 12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최종 검수는 FIA의 찰리 화이팅 기술대표를 비롯, FIA 관계자와 F1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 정영조 대표, 독일 틸케(Tilke)사,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이팅 기술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주장 수리동인 피트(PIT) 건물 진·출입로에서부터 5.615㎞에 이르는 서킷을 직접 걸으면서 서킷 표면, 가드레일·타이어 배리어·버지(verge·잔디가 깔린 길)·연석(緣石) 등을 점검했다.

현재의 경주장 상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게 KAVO측 설명이다. 이번 검수에서 '그레이드 1' 등급을 받아야 F1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정영조 KAVO 대표는 "이번 최종 검수는 FIA가 정한 스케줄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최종 검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작은 부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검수단이 대체로 경주장 상태에 만족스러워한 것 같다"면서 FIA의 검수 통과를 자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세계 금형기술의
새 틀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 준공!
세계 최고의 금형기술이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합니다.
전문화된 인력과 세계 최고 기술로 광주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 일등 금형기술을 만듭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호남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SAMSUNG